

## 용접기 제조업체 “금호전기”

(주)금호전기 대표이사 노창환

Tel: (032)589-4997



대표이사 노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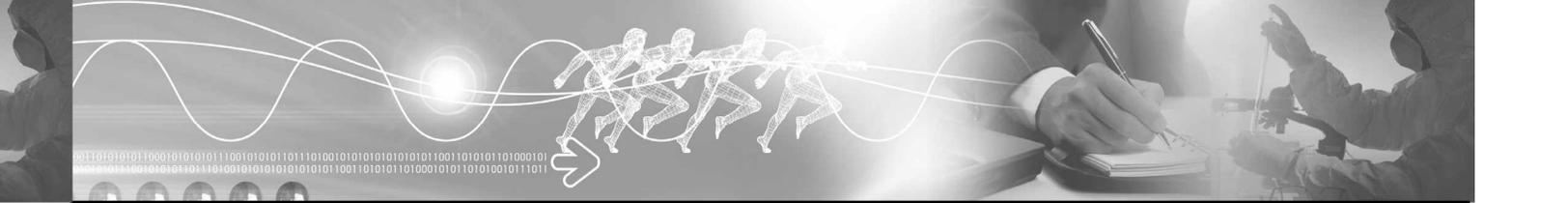
금호전기는 1985년 1월에 설립한 용접기 제조업체로 인천시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청도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용접기 만드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직원들과 밤을 지새며 일하던 때가 문득문득 떠오른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행복했던 것 같다.

용접기는 산업현장에서 금속을 이용한 모든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것이 없으면 관련 제품생산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발전없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내 용접기산업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조선, 자동차, 건설산업 및 철구산업의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왔고, 특히 70-80년대에는 대형 조선소의 시설확대와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으로 용접기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90년대 후반들어 IMF와 더불어 국내 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호전기는 진 직원이 꾸준한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불철주야 고군분투한 결과 지금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크 용접기는 안정된 아크 특성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각광받는 제품이다. 특히 용접기는 공과 및 이공계 대학에서 학생들의 실습 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가슴 뿌듯함을 느끼지만 원자재의 급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요즘 용접기는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자동차, 조선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생산기반기술로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기술임이 분명하나 그에 따른 대우와 환경은 그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국내시장이 위축되어 내수부진현상이 지속하고 있고, 영세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인하경쟁으로 단가 하락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져 용접산업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용접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용접기산업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되어 타 산업에 큰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갈수록 기술적인 면이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여 세계용접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학·연 콘소시움을 통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정부 및 조합차원에서의 동시장에서 적절한 개입이 뒷받침되어 동업체의 종사자

들이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었으면 한다

한편 용접산업체들은 하루빨리 현재의 가격출혈경쟁에서 벗어나 상부상조와 공생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며, 특히 소비자들은 제품구입시 가격의 저렴함보다는 제품의 하나하나에 그 기능까지 꼼꼼히 따져 품질을 우선시한다면 생산업체도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용접산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투자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문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인버터 초소형, 초고속, 고효율,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탑재한 퍼지기능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인버터 용접기는 더 높은 점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하여 용접기산업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동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표준**

